

KEA FOCUS

전기저장장치 관련 전기설비기술기준 확정·고시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 전담기관인 대한전기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15일 전기저장장치(EES)와 관련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환경문제에 따른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목적으로 EES의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기존 전기설비기술기준 상에는 EES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전기설비로서의 법적 지위 미정립은 물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이 없어 설계 및 시공시 혼란이 발생해 왔으며, 특히 법정 검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전기협회는 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EES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EES에 대한 시설기준 연구와 산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전기설비기술기준 제·개정안을 확정해 정부에 보고한 바 있다.

이번 EES 관련 전기설비기술기준 제·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EES를 '전기를 저장하고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인체 및 다른 전기설비의 위해 방지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시설기준 조항을 신설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발전소' 정의에 EES를 포함시킴으로써 EES의 전력거래를 위한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의 거래에 관한 지침'도 개정했다. 여기에는 EES를 한전 거래 대상에 포함시키고 '전력거래계약(PPA)'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EES를 이용, 전력가격이 낮은 시간대에 충전하거나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전력을 저장한 후 원하는 시간대에 전력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소규모 EES의 경우 한전에 직접 역판매를 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전기협회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하는 전기설비의 안전성능에 대한 적합성 판단의 기준으로서 EES의 판단기준을 제정기로 했다. 아울러 V2G(Vehicle to Grid)에 대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도 추후 제정해 나갈 계획이다.

KEPIC 운영협의회 개최...올해 주요 수행업무 확정



대한전기협회는 지난달 5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서울시 강남남구 소재)에서 KEPIC(전력산업기술기준) 운영협의회 참여기관 대표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KEPIC 운영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고안건으로 ▲제20차 KEPIC 운영협의회 결과 ▲2014년도 KEPIC 주요업무 추진현황 ▲e-Book 시스템 기반 KEPIC 자원조달 방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지난해 KEPIC 신규개발은 4개 기술분야 36종 2,535쪽이 완료됐으며,

관리대상 375종 중 5개 기술분야 66종 1,827쪽이 개정됐다. 또한, △신서천 1,2호기 △서울북합 1,2호기 △영흥 7,8호기가 KEPIC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어진 의견안건 보고에서는 2015년도 KEPIC 사업비 부담(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으며, KEPIC 중장기사업 추진계획의 중기(6단계 : 2011~2015년) 소요예산 조달계획에 따라 참여기관별 부담금액이 확정됐다. 한편 전기협회는 2015년도 KEPIC 주요 수행업무로 ▲KEPIC 개발 및 개선보완 ▲전력산업계 KEPIC 적용 활성화 ▲KEPIC 국제화 체제구축 및 해외적용 기반마련 ▲KEPIC 웹기반 운영체계 시행 및 확대 등을 적극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전력신기술 심사위원회 열고 신청건 등 심사 진행



대한전기협회는 지난달 12일 전력신기술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승리전력과 하나테크가 공동으로 지정 신청한 'Multi Cable Machine(MCM)을 이용한 지중 전력케이블 철거·신설 시공방법(기술)'과 극동건설과 세안이언씨가 공동으로 연장 신청한 '전동식 자체 견인력을 가진 본체 상하이동식 권상장치를 활용한 송전선로 삭도운반기술(기술)'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승리전력 등이 신청한 기술은 MCM을 이용해 지중 전력케이블의 철거·탈피·절단작업이 현장에서 동시에 가능하며, 최대 2회선을

동시에 포설할 수 있는 시공기술이다. 극동건설 등이 연장 신청한 기술은 권상장치를 상하이동식으로 운전함으로써 유지보수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2대의 원치로 구성해 작업연속성도 확보 가능한 신기술이다.

한편 전력신기술 지정제도는 1996년 전력기술관리법이 입법화되면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신기술 인증제도이며, 전기협회가 1997년부터 인증을 위한 심사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전기규정 제정(안) 의견수렴 위해 간담회 개최




대한전기협회는 지난달 16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전기산업계 산·학·연 전문가 약 30여명을 초청해 '한국전기규정(KEC, Korea Electrical Code) 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기협회는 현재 제1편 공통분야, 제2편 저압전기설비분야, 제3편 고압전기설비분야 등 KEC 제정초안을 80% 정도 작성한 상태로, 올해 6월까지 제4편 지능형전력망분야에 대한 제정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KEC 제정초안을 확정해 내년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KEC의 경우 전기설비의 설계시

혼돈이 없도록 어렵지 않게 제정해 줄 것과 또 이론적 백업이나 데이터 분석을 가미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시공, 설계 등 실질적으로 현장작용을 위한 방안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전기협회 관계자는 "KEC 최종 개발 이후 산업계 적용시 유예기간을 최소화해 사용자들에게 혼선을 줄 우려가 없도록 공청회, 설명회 등 다양한 방안을 구성 중"이라며 "학회, 유관기관, 언론 등의 창구를 통해 산업계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승격 인사 |

▲기술기준처 김준택, 신성수 ▲KEPIC처 신준호, 김명준 ▲기술처 이재원(이상 4직급) ▲기술기준처 신정진 ▲KEPIC처 이종은 ▲전기교육원 김해윤(이상 5직급)